

우리 태도를 수정하시는 주님

신학박사 조 덕운

성경 본문: 누가 복음 9: 46-56

46 그때에 그들 중에 누가 가장 큰 자인가 하는 일로 논쟁이 그들 가운데서 일어나매, 47 예수님께서서 그들의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며, 48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아이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또 누구든지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나니 너희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람 곧 그가 큰 자가 되리라, 하시니라.

49 ¶ 요한이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그가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그를 막았나이다, 하니 50 예수님께서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를 막지 말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51 ¶ 그분께서 위로 올려져서 영접 받으실 때가 이르매 친히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자기 얼굴을 고정하시고, 52 사자들을 자기 얼굴 앞에 보내시니 그들이 가서 그분을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을로 들어가니라. 53 그분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는 듯한 얼굴이므로 그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매 54 그분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이르되, [주]여, 엘리야가 행한 것 같이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저들을 멸하도록 우리가 명령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거늘 55 그분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어떤 영에 속해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56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생명을 멸하려 오지 아니하고 구원하러 왔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다른 마을로 가니라.

1. 누가 가장 큰가?

- A. 사람들이 모인 어느 집단이든지 그 구성원들을 이끄는 리더가 있게 마련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법적인 또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리더가 선출 또는 지정되지만, 다른 경우에는 리더십을 지닌 통솔자가 자연스럽게 나서서 다른 사람들을 이끌게 됩니다. 때로는 세종대왕 같은 덕과 지혜를 갖춘 지도자가 나오기도 하지만, 최악의 경우에 히틀러 같은 사악한 지도자가 한 나라 뿐 아니라 온 세계를 전쟁과 혼란으로 이끌며 한 민족을 말살하려는 악마적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주 예수님께서서 자신이 머지않아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붙잡혀 고난 당한 후에 십자가에 못박혀 죽을 것을 재차 이야기 하시자 제자들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안계시는 경우에 누가 이 집단을 이끌어 갈 것인가 걱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과연 누가 자신들을 이끌어 주님께서 주시는 미션을 수행해 갈 것인가? 이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에 당연한 걱정거리요 당연한 안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논의는 누가 그들 중에서 가장 큰 자인가에 맞춰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지도자는 인간의 눈으로 보아 “큰 자 [Great Person]”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큰 자는 보통은 능력이 많고, 잘 생기고, 돈이 많고, 말 잘하고, 힘이 센 사람을 지칭합니다.
- B. 주님께서서는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나서 한 어린 아이를 세우시고 그들의 지도자가 어떤 덕목을 가져야만 하는지 가르치셨습니다.
-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아이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또 누구든지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나니 너희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람 곧 그가 큰 자가 되리라, 하시니라. [48 절]”
- C. 제자들은 자기들 중에서 누가 가장 큰 자인가에 집중하였지만, 주 예수님께서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과 인생에 어린 아이처럼 받아드린 자’가 바로 큰자, 즉 하나님께서 귀하에 보시는 제자라고

귀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제자란 세상 물정을 모르는 바보 같은 성도를 가르치는 말은 아닙니다. 어린 아이처럼 쉽게 속임수에 넘어가는 현명하지 못한 제자도 아닙니다. 어린 아이들의 가장 훌륭한 특성은 그들이 진리를 보고 사랑하며 받아들인다는 사실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속임수를 쓰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부모를 순전하게 사랑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선을 사랑하며 악을 두려워 하고 멀리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사랑에 쉽게 반응하고 사랑을 나누는 일에 인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큰 자는 바로 이런 품성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갖고 주님의 일에 온 힘을 다하여 헌신하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교회 지도자에게 필요한 지혜와 자원은 주님께서 모두 마련해 줄 것이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쓰실 수 있는 제자, 바로 그가 주님의 교회에서 큰 종입니다.

[시편 75:5-7] 너희 뿌를 높이 들지 말며 뺏뺏한 목으로 말하지 말라. 높이는 일은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남쪽에서 나오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시나니 그분께서 한 사람을 낮추시고 다른 사람을 높이시느니라.

2. 분파주의를 질책하시는 주님

- A. 제자들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 내는 일을 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제자들이 그를 보고 자신들을 따르라고 하자 그가 거부하였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그런 일을 하면 안된다”고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주님께서서는 “그를 막지 말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라고 말씀하심으로 제자들의 잘못된 생각을 수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귀를 쫓아내는 사람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 것을 믿고 그분의 능력으로 악귀 들린 사람들을 고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를 자신들의 수하로 만들고자 하므로 그가 거부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이 주님의 제자들이라는 자긍심이 교만함으로 이 사람에게 비쳐졌던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그가 그들을 따라 오기를 거부했던 것은 아닐까요? 주님께서서는 이 사람이 중국에는 자신에게 오실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 B. 오늘날 개신교에 많은 교파가 있다고 하여 비판을 합니다. 교파간에 과거에 저지른 잘못으로 인하여 상당한 앙금이 남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리상으로 크고 작은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의 개신교 교파들은 주 예수님이 구세주 이신 것을 믿고 핵심적인 신앙의 공동 기초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교파들은 모두 형제들인 것입니다. 어느 가족에 형제들이 12 명이 있는데 이들이 미국의 여러 주에 흩어져 산다고 합시다. 그들의 부모님께서 이 12 자녀들의 집을 각각 방문하시게 되면 그들의 액센트도 약간씩 다르고, 옷 입는 매너도 다르고, 집 짓는 방식과 규모도 다르고, 먹는 요리도 상당히 다를 것입니다. 그래도 이 자녀들과 손자들은 모두 부모님을 환영하고 사랑을 표현하며, 자기들의 집에 부모님께서 방문해 주신 것을 진정으로 감사드리며, 주위 사람들에게 부모님을 소개하면서 이분들이 우리를 낳고 키워주신 부모님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파는 다르더라도 한 형제요, 한 하나님, 한 예수님, 한 성령 아래에서 한 진리를 따르며 같은 소망을 갖고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 C. 따라서, 다른 교파에 대하여 비판하지 말고 서로 도우면서 사랑을 표현함으로써 믿지 않는 세상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 됨을 분명히 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한국 교계에서는 언제부터인지 소위 ‘이단 심판’이 있어 왔습니다. 기성 교단에 이런 조직이 있어서 다른 군소 교회들이 이단인지 심사, 검토하여 이를 발표함으로써 이단이라고 판정된 작은 교회를 사회적으로 매장 시키는 일을 주저 없이 하고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도 인천의 ‘사랑침례교회’가 그런 엉뚱한 이단 판정을 받고 해명을 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이단 심판은 참으로 잘못된 태도입니다. 만일 한 개신교 교단이 잘못되어 있다면 신천지 교회가 이번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하여 이단으로 분명히 드러난 것처럼 주님께서 그 잘못됨을 드러내시고 벌하실 것입니다. 기성 교단들은 남을 심판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마땅히 크리스찬 교회로서 해야 할 바를 부지런히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한 자이다”라는 주님의 기준을 적용하면서 다른 교단들에게 관용하는 자세, 사랑과 자비로 서로 돕는 태도를 가져야 참된 크리스찬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사마리아 인들과 주 예수님

- A.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들이 통과하는 한 사마리아 마을의 사람들이 메시아 되신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을 보고,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그들을 죽이도록 명령해도 되느냐고 주님께 여쭙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거부하는 이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은 살 가치가 없으며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두 제자들은 옛날 열왕기하 1 장에서 대언자 엘리야가 아하시아 왕이 보낸 50 명씩의 군대를 두 번이나 하늘의 불을 빌어서 죽인 사건에 비추어 볼 때에, 주님께서는 엘리야보다 크신 분이므로 충분히 그렇게 하실 능력이 있으며, 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믿지 않는 악한 자들에게 하늘로서 징벌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시도록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분의 초림 때의 미션은 자비와 사랑의 미션이었기 때문에 야고보와 요한의 영이 잘못된 것을 나무라시고 자신의 미션이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살리는 미션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분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어떤 영에 속해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사람의[아들]은 사람들의 생명을 멸하려 오지 아니하고 구원하러 왔느니라, 하시니라. [9:55-56]

- B. 그러면 BC 800 년 경에 이스라엘 왕국에서 사역했던 엘리야의 미션과 8 백년 후에 이스라엘에 오신 주 예수님의 미션이 어떻게 달랐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직접 보내어 아하시아 왕의 부하들을 무자비 하게 죽이시도록 허락하셨지만, 주 예수님은 은혜와 사랑의 메시지로 오셨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성품이 달라지셨습니까? 성부 하나님은 엄하고 무섭지만 성자 예수님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찬 분이신가요? 믿는 성도들이라도 하나님의 양면성을 이해하기가 힘든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북 이스라엘 왕국의 왕과 왕비 뿐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백성들이 바알 숭배에 깊이 빠져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매우 아프게 하고 있었습니다. 아하시아 왕의 아버지인 아합 왕과 그의 사악한 부인 이사벨은 앞장 서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숭배와 온갖 타락에 빠지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합 왕을 이용하여 시리아의 침공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게 하였지만, 그의 타락이 극심하여 그를 전쟁 터에서 죽도록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아하시아가 사고로 병들게 되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대신에 우상인 바알세불에게 먼저 자기 병 낫게 간구함으로써 자기 부모님이 걸었던 패악의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나중에 엘리야에게 질책을 듣고 나서야 병사들을 세 번 보내어 그를 왕궁으로 초빙하려 하였지만, 종국에 하나님께서는 아하시아 왕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백명의 병사들이 하늘로부터 불을 맞아 죽은 이 사건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일어난 일이었고, 엘리야는 다만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알고서 진노의 집행관 역할을 한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수행하는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 c. 그러나 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오셨을 때에는 백성이 우상 숭배하는 일은 없었고, 그들은 로마의 압정과 부패한 위정자들, 외식하고 교만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착취당하는 중에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과의 반목 때문에 쉽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 중 한사람인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 전파 사역을 했을 때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에게 때가 아직 이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야고보와 요한은 그들을 하늘의 불로 멸해 버리자고 주님께 말씀 드렸으니 주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신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잘 보지 못하고 복음 사역에도 참을성이 없으며 사람들의 무반응 뒤에 있는 진정한 이유를 알고자 하지 않습니다.
- d. 아직은 '은혜의 때' 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그러나 종말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진노의 징벌을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우상 신을 섬기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에게 내리실 것입니다. 그 진노의 날이 오기 전에는 죄인들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신을 죄인들의 구속을 위한 댓가로 바치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의 충실한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태도와 심령이 바로 잡히도록 주님의 발 앞에 무릎 꿇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시고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환과 모든 질병을 고쳐 주시니라. 그러나 그분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으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지치고 널리 흩어졌기 때문이라. [마태 9:35-36]